



경희대학교

2019학년도 오프라인

#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6월 2일(토)]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사회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1492년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살았던 미국의 원주민(아메리칸 인디언)을 제외하면 현재 미국에 사는 모든 국민은 이민자의 자손이거나 새로 온 이민자들이다. 언어와 문화가 제각기 다른 다양한 민족의 집합체이면서 법과 질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미국 사회를 어떻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여러 이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용광로(melting pot) 이론과 샐러드 그릇(salad bowl) 이론이다. 과거에는 미국 사회를 큰 용광로라고 불렀다. 플라스틱이건 철강이건 뜨거운 용광로에 일단 들어가면 이전의 모양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으로 변한다. 세계 각지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 온 이민자들은 일단 미국에 들어와 살면 어디에서 왔건 모국의 언어, 문화, 전통을 잊어버리고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다른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용광로 이론이다.

반면 근래에 와서는 샐러드 그릇 이론이 용광로 이론보다 미국 사회를 더 잘 반영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샐러드 그릇에 들어 있는 각종 채소와 과일은 각기 고유의 맛과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재료들과 조화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 온 이민자들이 모국의 언어, 문화,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다른 민족들로 구성된 이웃과 잘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샐러드 그릇 이론이다.

미국에서 태어났건 이민 온 1세이건 미국이란 큰 용광로에 들어가 100% 미국인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 노력을 하는 대신 미국이라는 거대한 샐러드 그릇에 들어있는 하나의 귀중한 재료로서 각자의 개성, 문화, 언어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언어의 기술에서 기준이 되는 어휘는 무표적(unmarked) 형태로 나타나고 파생된 주변적 어휘는 유표적(marked) 형태로 나타난다. 남성형이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무표적 형태이고, 여성형은 남성형에서 파생된 유표적 형태를 띄는 것이 보통이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교수, 여기자, 여사장, 여순경, 여군인  
 여자고등학교, 여자대학교, 여고생, 여대생  
 여류작가, 여류화가, 여류시인, 여류문인

첫 번째는 직업에서 여성의 역할과 공간을 규정하는 표현들이다. 남성들이 대부분의 직업을 점유해 왔기 때문에 남성의 직업에 대해서는 ‘남~’이 앞에 붙지 않지만, 여성이 이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여~’가 붙게 된다. 하지만 남성의 직업을 보조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여겨진 직업에 대해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특정 직업에 남성이 종사하면 남자간호사나 남자가정부처럼 단어 앞에 ‘남자’가 붙는다.

두 번째는 교육 기관과 학생에 대한 단어들이다. 역시 여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이름이나 학생 앞에 ‘여자~’나 ‘여~’가 붙는다. 교육대상을 남자 위주로 하고 여자를 차별한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세 번째는 탁월한 재능과 열정이 있어야만 하는 예술인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여기에서도 남성일 경우에는 앞에 ‘남류~’가 붙지 않지만, 여성일 경우에 한해서 앞에 ‘여류~’가 붙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휘 체계의 기준이 남성 쪽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무표적(unmarked) 단어는 형태와 의미에서 단순한 경우를, 유표적(marked) 단어는 복잡한 경우를 뜻한다. 유표적 단어가 무표적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미성분을 갖는다.

<뒷면에 계속>

[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칸트의 미학 이론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림이나 자연 풍광을 보면서 느끼는 감성들은 계급적으로 차이가 난다. 계급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미학적 취향이 학교나 가정에서 익힌 훈련에 따라서 다르게 길들여진다는 점을 가리킨다. 게다가 미학적 취향이 사회적으로 옳음/그림의 형식으로 작용하도록 강제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

부르디외는 미학과 윤리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다. 미술 작품이나 음악에 대한 취향은 현실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성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술에 대한 순수주의를 강조하는 미학적 성향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부르주아적 계급 기반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것은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윤리적 성향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예술이 윤리적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 미학적 취향은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며, 이것은 다시 고급 취향/대중 취향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만든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자/피지배자의 권력 형식이다. 즉 아름다운 것/추한 것, 탁월한 것/천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구도 안에서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각 주체는 객관적 분류 체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높음/낮음의 형식으로 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시되는 가치는 바로 ‘관용’이다. 서로 다른 외모, 사고 방식, 문화 등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 태도는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리스나 터키에서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 역시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응을 돕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문화 체험 및 언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이주들이 경험하고 있는 각종 편견과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

옛말에 ‘다섯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자식이든 모두 내 자식이며,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섯 손가락은 전부 다르게 생겼고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 만약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잡거나 드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제일 작고 두껍게 생겨 볼풀이 없다. 한편 새끼 손가락은 가장 가늘고 힘도 별로 쓰지 않지만 애인과 나중에 꼭 곁 혼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언약을 할 때에는 새끼 손가락을 곁머리 약속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결혼 반지는 넷째 손가락에 양보한다.

다섯 손가락은 모두 다르게 생기고 다른 기능을 하는데, 어느 하나 쓸모없는 손가락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각자 다른 얼굴 생김과 마음 생김을 가지고 태어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울려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조화하면서 살아간다.

[바]

남자 프로농구에서 키 2m가 넘는 외국인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퇴출된다. 한국농구연맹(KBL)에서 내린 결정 때문이다. KBL 총재는 지난달 6일 “남자프로농구 KBL은 2018-19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신장 기준을 장신 선수는 2m 이하, 단신 선수는 1m86cm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과를 밝혔다. 지난 시즌에는 장신 선수의 키 상한은 없었고, 단신 선수만 1m93cm 이하로 제한했었다.

외국인 선수의 신장 제한은 KBL 총재가 부임 이후 강조해 온 ‘빠른 농구’ 활성화와 연관이 깊다. 선수들 신장이 작아지면 경기 속도가 빨라져 경기가 흥미로워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팬들과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 장·단신 제도 부활을 강행했던 KBL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 몇몇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은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 구단은 단기간에 키를 줄여 제한을 통과할 방법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한 구단에서는 “무거운 기구를 오래 들고 있다가 키를 재면 순간적으로 작게 나온다”는 속설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한 농구단의 외국인 선수는 지난 2일 “측정 전 많이 움직이면 키가 작게 측정된다”는 말을 듣고 건물 주변을 뛰고 들어왔으나, 재측정 결과 2.1cm 초과한 202.1cm였다. 이 선수는 2.1cm 차이로 국내 농구계를 떠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익명 현직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수 관련 규정만 바꾸는데 200cm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한국 농구만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해외에는 2m 넘는 선수들이 즐비한데 이미 국내에서 오래 활동해 팬들과 정을 쌓은 선수를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내보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 제한 외에도 연봉 상한선도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외국인 선수 영입 연봉 상한선은 2명 합계 70만 달러(약 7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상한제에 이번 ‘신장 상한제’까지 맞물려 좋은 선수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로농구 관중 수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14년 134만명에 달하던 프로농구 관중 수는 지난해 9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당 평균 시청률도 0.2%에 그쳤다.

<뒷면에 계속>

[사]

잡종(하이브리드, hybrid)화는 한편으로는 분리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의 편견과 획일화에 대립하며 이것에서 비롯되는 중심이니 주변이니 하는 힘의 역학과 무관한 수평적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화되지 않은 새로운 결합의 논리를 통해 차이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기존의 것에 섞어 변화의 에너지는 창출해 냄으로써 제3의 것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 결합하고 섞이는 운동의 전 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포괄하지만, 무엇보다도 차이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그것에 내재된 가치와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창조의 가능성으로 이어주는 운동 과정에 주목한다. 이른바 하이브리드는 다양하게 모색되는 새로운 결합의 창조적 과정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극복을 가능케 해주는 하이브리드의 결합 논리는 바로 개방성에서 출발한다. 잡종성은 어떤 것에도 편향적이지 않고 열려 있는 개방성에 의해서야 비로소 그 자체의 참된 본성을 실행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개방성은 이질적인 것들 간의 경계를 낮추고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서로 간의 수용과 혼합의 가능성으로 나갈 계기를 마련해 준다. 더 이상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오늘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해법을 새로운 결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개방적인 사고와 태도는 이질적인 것, 낯선 것 심지어는 적대적인 것과의 경계를 허물고 상식을 뛰어넘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게 해주는 전제이다.

[ 문제 I ]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 문제 II ]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 문제 III ]

제시문 [바]의 외국인 키 제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농구 경기당 관중 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농구 경기당 관중 수는 경기당 덩크슛 수의 함수로 나타났다. 정책 도입 전의 농구 경기당 관중 수는 경기당 덩크슛 수에 대해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며 덩크슛이 10개일 때 최대 관중이 5000명인 것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경기에서 덩크슛이 없을 때 관중은 100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 도입 후의 농구 경기당 관중 수는 덩크슛 수에 대해 1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덩크슛이 없을 때 관중은 1000명이었다. 또한 외국인 키 제한 정책 도입 전의 관중 수에서 도입 후의 관중 수를 뺀 차이는 덩크슛이 4개일 때 가장 컸다.

덩크슛이 경기당 7개일 때, 외국인 키 제한 정책 도입 전후의 경기당 관중수의 변화량을 도출하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제시문 [바]에 제시된 외국인 키 제한 정책을 평가하시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